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표지 탐색하기

※ <어린이 탈무드>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어린이 탈무드'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 돈을 주고 산 낙타의 안장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면 낙타 주인에게 돌려 줘야 할까, 내가 가져야 할까?
- 랍비는 왜 유리창 같은 마음과 거울 같은 마음, 둘 다 필요하다고 한 걸까?
- 건강한 질투심과 병든 질투심, 내 마음속에는 어떤 질투심이 있을까?

① 위의 세 가지 중 질문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 선택한 질문 :

• 나의 답변 :

② 건강한 질투심과 병든 질투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각각 예를 들어 보세요.

⇒ • 건강한 질투심 :

• 병든 질투심 :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①

※ <어린이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신사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세심하게 묘목들을 살펴보았지요. ()
-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 로마에 퍼졌습니다. ()
- 낙타 주인이 보기에도 랍비는 부유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
- 그래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까. ()
- (나) · 네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게 되어 학교에서 학비를 ㉠□□해 주기로 했어.
- 그 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하지는 못하겠지?
-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앞으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만 ㉢□□해 주세요!
- 제사장과 백성들은 임금님의 자리에 있던 남자를 죽음의 섬으로 ㉣□□했습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짝 지으세요.

- | | | |
|----------------------------------|------------------|---|
| 세심하다
비극적인
부유하다
거들떠보지 않다 | ·
·
·
· | · ①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 ②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빈틈이 없다.
· ③ 아는 체하거나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다.
· ④ 비극처럼 슬프고 비참한 성질을 지닌. |
|----------------------------------|------------------|---|

2) (나)에 제시된 문장의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함.

㉡□□ : 돈을 치르다.

㉢□□ :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씀.

㉣□□ :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①

※ <어린이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늘도 복을 주소서!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오늘도 축복을 내려 주소서!”

시끄럽게 외치는 소리는 이른 아침마다 조용하던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평안한 아침은 사라졌어!”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빵집 주인이었지요.

(나) 나그네는 인사를 하고 다시 한 번 등불을 든 남자를 쳐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놀라 물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지요?”

그러자 남자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녀야 사람들이 내가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고 부딪치지 않도록 피해 가겠지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랍니다.”

1) (가)의 ‘빵집 주인’과 (나)의 ‘앞 못보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빵집 주인** : 내가 □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든 말든 크게 □□를 질렀다.



• **앞 못보는 사람** :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까봐 자신은 보이지도 않는 □□을 들고 다닌다.

2) (나)의 ‘앞 못보는 사람’이 (가)의 ‘빵집 주인’에게 충고한다면 뭐라고 할지 써 보세요.
⇒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②

※ <어린이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느 큰 부자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하인을 불러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집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요.

㉠ 나의 전 재산은 내 하인에게 주고,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자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난 이제 부자다!”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서를 전했습니다. 유서를 읽은 아들은 무척 실망했습니다.

(나) “그렇지 않단다. 네 아버지는, 하인이 자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낭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기도 한 거지. 그러면 하인은 기뻐서 가능한 한 빨리 자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재산 또한 소중하게 간수하지 않겠나?”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하인의 소유가 됐지 않았습니까?”

“쫄쫄, 잘 생각해 보거라. 아버지는 네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어.

㉡()

그러니 얼마나 현명한 아버지시니?”

1) (가)에서 큰 부자가 ㉠과 같은 유서를 쓴 이유는 어떤 걱정 때문이었는지 (나)에서 찾아 쓰세요.

⇒

2) (나)의 빈칸 ㉡에 들어갈, ‘아들이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앞뒤 문장을 보고 글의 흐름에 맞게 써 보세요.

⇒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사고력 쑥쑥 키우기 ①

※ <어린이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얼마쯤 지나자, 황후가 랍비의 외모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대의 훌륭한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안타깝군요. 호호 호.....”

“그런가요? 참, 그런데 황후마마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랍비는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 “얼마든지요.”

“로마 황궁에서는 포도주를 어떤 곳에 담아두는지요?”

“포도주니까, 나무통에 보관하지요.”

“고귀한 로마 황제와 황후께서 드시는 포도주를 어찌 보잘것없는 나무통에 보관하시지요? 그 많은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는 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나) 망신을 당한 황후는 못생긴 랍비를 당장 불러들여 따졌습니다.

“이보시오! 학식이 높은 그대가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가 포도주 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찌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요?”

불같이 화를 내는 황후에게 랍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것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 두는 게 좋을 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가)에서 밑줄 친 ㉠은 황후가 어떤 뜻으로 한 말인가요?

⇒

2) 랍비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한 황후에게 포도주를 담는 통의 사례를 들어, (나)의 밑줄 친 ㉡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랍비라면 황후에게 어떻게 충고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사고력 쑥쑥 키우기 ②

※ <어린이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선생님!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 주세요!”

“선생님! ㉠애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대요. 정말 못됐어요!”

두 학생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로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그런데 랍비는 이번에도 “저런! 나 같아도 당연히 화가 났겠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걸 참았던 말이니?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라며 키 작은 아이의 말에도 역시 맞장구쳐 주었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화해하고 교실로 돌아갔지요. 그 모습을 본 어느 선생님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두 아이 모두의 말에 옳다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다투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쪽이 옳다고 편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두 사람에게 ‘더 싸우시오’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거든요. 중요한 건,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면 이성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고, 마침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요.”

1) ㉠과 같은 태도일 때와 ㉡과 같은 태도일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 같은 태도일 때 :

⇔

㉡과 같은 태도일 때 :

2)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도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다음 (예)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장을 써 보세요.

(예) 나는 라면을 좋아하지만, 우리 엄마는 라면을 싫어하신다.

⇨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창의력 쑹쑹 키우기

※ <어린이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 부류는 배에 남아 있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섬에 있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떠밀려 갈지도 모릅니다. 또, 이 섬이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들의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부류는 섬에서 실컷 쉰 다음 배를 고쳐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섬으로 올라가서 물을 마시고 맛있는 과일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꼭 쉰 다음 배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섬에 올라 마음껏 풍경을 즐겼지요.

“어머, 이 꽃과 새들 좀 봐!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야!”

그들은 섬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배가 수리되자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섬에서 실컷 쉬고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다가 배가 떠나려고 하자 놀라서 달려왔지요. 얼마나 급히 왔는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류는 섬이 좋다며 아예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섬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섬에 있는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1) 이 글에서 ‘배’는 우리 인생을, ‘섬’은 ‘쾌락(바르지 않은 즐거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섬’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이상 써 보세요.

⇒

2) 여러분은 몇 번째 부류로서 살고 싶은가요? 그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 나는 ()번째 부류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표현력 쑥쑥 키우기

1) <어린이 탈무드>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랍비는 다시 한 번 혀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혀라고요? 아유, 징그러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십니까?”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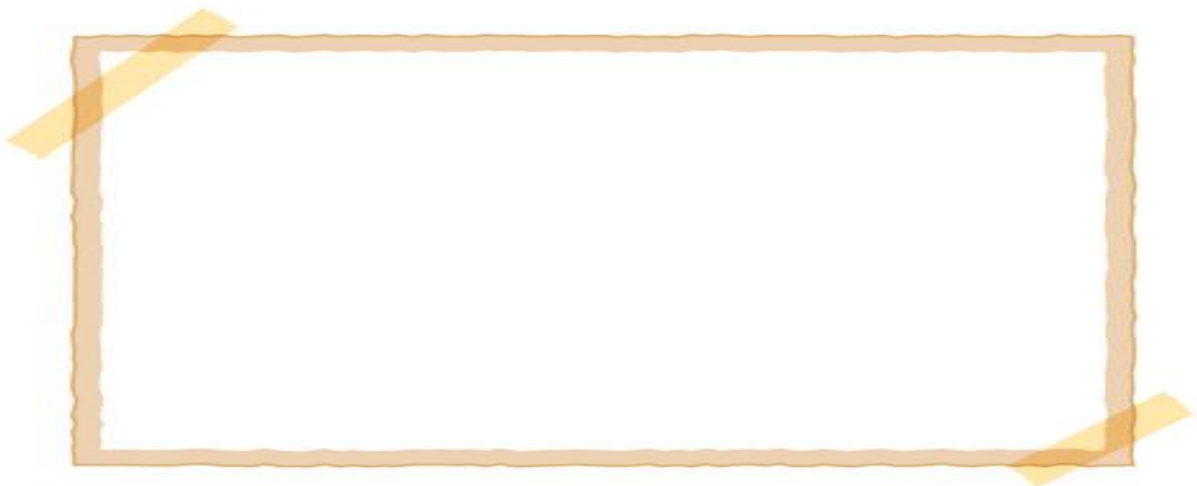
“여러분, 아무리 값지고 귀한 물건을 사면 뭐합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 내는 마음에 상처 내는 말을 하면 그 귀한 물건들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지고 맙니다.”

랍비의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랍비가 금보다 귀한 것을 보여 준다면 혀를 보여 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2) 여러분도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고운 말을 쓰자는 내용의 표어를 만들고 그림도 그려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노경실 글 / 송하완 그림



정답과 해설

1쪽	<p>1) (예시답안) 탈무드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어느 나라 말일까? 무슨 뜻일까?</p> <p>2) (예시답안) 사람 얼굴 형태의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옛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p> <p>3) ① (예시답안) 첫 번째 질문 / 낙타를 산 것인지 다이아몬드를 산 것은 아니므로 다이아몬드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② (예시답안) 건강한 질투심 : 친구가 공부를 잘 할 때 질투하여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 / 병든 질투심 : 친구가 공부를 잘할 때 질투하여 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p>
2쪽	<p>1) 세심하다-②, 비극적인-④, 부유하다-①, 거들떠보지 않다-③</p> <p>2) ㉠ : 면제, ㉡ : 지불, ㉢ : 전념, ㉣ : 추방</p>
3쪽	<p>1) (순서대로) ③, ⑤, ①, ②, ④ 2) ㉠ : 마른, ㉡ : 기르기도, ㉢ : 뻗지</p>
4쪽	<p>1) 빵집 주인 : 돈, 소리 / 앞 못보는 사람 : 부딪칠, 등불</p> <p>2) (예시답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복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남이 듣기에 시끄러운 소리는 자제하세요.</p>
5쪽	<p>1) 하인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낭비할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2) 하인을 선택하면 모든 재산과 하인까지 가질 수 있다.</p>
6쪽	<p>1) 랍비는 지혜가 있지만 외모가 못생겼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p> <p>2) (예시답안) 남의 외모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황후님의 외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황후님의 기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p>
7쪽	<p>1) ㉠과 같은 태도일 때 : 서로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싸우게 된다. ㉡과 같은 태도일 때 :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누그러져 화해하게 된다.</p> <p>2) (예시답안)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등 (가이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해 봅니다.</p>
8쪽	<p>1) (예시답안) 컴퓨터 게임, 휴대폰, 술, 담배 등.</p> <p>2) (예시답안) 나는 두 번째 부류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섬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쉬고 바로 배로 돌아와서 목적지에 가고 싶다.</p>
9쪽	<p>1) 정말 귀한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이기 때문이다.</p> <p>2) 생략.</p>